

117. 진정한 창조는 기쁨과 순수가 따라야 한다

일하는 기쁨에 대해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하루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에디슨이 천 가지가 넘는 발명을 함으로써 인류에게 문명의 편리함을 안겨준 원동력은 일을 놀이처럼 즐겁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즐겁게 일하는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은 ‘창조’라는 결과물을 낳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힘들어도, 돈이 되지 않아도 즐거움을 준다. 하고 싶은 일은 그 자체가 ‘꿈’이다.